

유통·화장품 한 주 딱잡기



Analyst 안지영 6915-5675 [jyahn@ibks.com]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황금연휴에 쇼핑몰 '복직'... 코로나에 움츠렸던 소비심리 살아났다 (조선비즈 20.5.3)

4월 30일 석가탄신일부터 시작한 '4말5초' 황금연휴를 맞아 모처럼 쇼핑몰과 백화점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유통가에 훈풍이 불었다. 일요일을 맞은 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은 연휴 막바지 쇼핑을 즐기러 고객맞이에 분주한 모습.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한자리로 줄어들면서 쇼핑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 강남 신세계백화점도 모처럼 인파로 북적였지만 예년만큼 고객이 많지 않다는 게 매장 관계자의 설명. 한 매장 직원은 "코로나19 여파인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하는 것 같다. 불황이라 올해는 선물을 건너 띄려는 경향도 있는 듯 하다"고 밝힘.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황금 연휴 해외 여행을 하지 못해 생긴 지출 여력을 명품 구입에 쓰는 듯 하다"고 밝힘.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황금 연휴를 앞둔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백화점 카테고리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명품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7.1% 증가함. 한편 소비 심리가 '보복 소비'(revenge spending, 외부적 요인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되는 현상) 형태로 발현되면서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음. 실제로 국내 백화점의 4월 매출은 전달 대비 13.7%에서 최대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가정의 달 프로모션이 몰린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비가 몰리는 5월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힘.

노동절·골든위크 농친 면세점, 날아간 5월 특수 (전자신문 20.5.3)

사라진 황금연휴 특수에 면세업계 시름도 깊어짐. 예년 같았으면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가 이어지는 5월초 몰려드는 방한 관광객으로 대목을 누렸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관련 특수가 없어짐.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면세점들은 노동절과 골든위크 시즌에도 관련 행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정기 프로모션만 진행 중. 작년까지만 해도 롯데면세점은 골든위크 기간에 맞춰 일본인 고객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신라면세점도 골드 멤버십 카드를 제공했지만 올해는 이 같은 프로모션 자체가 실종됨. 신라면세점은 인터넷면세점 중문물에서 보너스 포인트 지급 행사 등 일상적으로 진행해온 이벤트 외에 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은 자취를 감춤. 롯데면세점 측도 정기 프로모션 외에 황금연휴를 타깃으로 한 행사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밝힘. 통상 국내 면세점에서 4~5월 일본 고객 매출의 30% 이상이 골든위크 기간에 발생, 올해도 이달 6일까지 최장 8일간의 골든위크 연휴가 이어졌지만, 코로나19로 모든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방한 관광이 불가능해짐. 중국 역시 노동절 연휴(5월 1~5일) 기간 늘어난 내국 여행객과 달리 방한 관광 수요는 끊김. 지난해 5월 방한 관광객이 20% 늘어난 149만명에 달하며 국내 면세점들이 특수를 누렸던 것을 감안하면 체감 타격이 더 큼. 실제 지난 3월 국내 면세점 방문객은 58만7879명으로 직전 2월 대비 66.4% 감소. 3월 매출은 1조873억원으로 지난해 절반으로 감소. 그나마 중국인 보따리상 대량 구매가 이뤄졌지만 격리조치가 시행되면서 이마저도 대부분 사라질 전망. 그나마 관세청은 6개월 이상된 면세점 재고 물품을 수입통관을 거쳐 아울렛 등에서 판매하는 것을 한시 허용. 이번 조치로 국내 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 중 20%가량을 소진할 수 있을 전망.

'바로배송 vs 로켓배송' 1R 승자는? (스포츠경향 20.5.3)

'당일 배송' 시장을 놓고 벌이는 신·구 유통 공룡의 1라운드 시작됨.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전국단위로 꿰차고 있는 '롯데'와 이커머스에 최상위 포지션인 '쿠팡'의 전면전.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앞서 7개 계열사인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닷컴·롭스·롯데홈쇼핑·하이마트들의 온라인물들을 하나로 통합한 '롯데ON(온)'을 출범하며 온라인 통합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 1조원대 적자를 내는 기업과는 경쟁하지 않겠다며 쿠팡과의 비교에 선을 그었지만, '당일 배송 시스템'의 선두주자인 쿠팡과의 일전은 불가피함. 롯데의 도전에 직면한 쿠팡은 자사의 강점인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섬. 관전포인트는 롯데가 막강한 자금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로 모아짐. 일단 롯데는 전국에 촘촘하게 깔려 있는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거점으로 삼아 주문하면 두 시간 안에 상품을 배송하는 바로배송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 주요 오프라인 점포들을 물류거점으로 삼아 쿠팡 대비 저비용으로 최고 배송효율을 얻겠다는 게 골자. 조영제 롯데e커머스사업본부 대표는 지난달 열린 전략발표회 자리에서 "쿠팡식 물류비용은 쓰지 않고 주요 계열사들 유통망을 활용해 더 효율적으로 배송 경쟁력을 키우는 등 롯데만의 차별화를 더해 나갈 것"이라고 전함. 실제 롯데온은 신선식품의 경우 주문 2시간 이내 배송을 롯데마트 서울 중계점과 수원 광고점 인근 2곳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 롯데쇼핑은 이런 바로배송 서비스 가능지역을 늘려 나갈 계획이고 롯데프레시센터와도 협업해 '새벽배송'도 제공 중. 현재 롯데쇼핑 회원은 3900만 명에 달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전국 1만5000여개에 달함.

지갑 달은 소비자... 전자업계 '반도체·언택트' 시장서 돌파구 모색 (디지털타임스 20.5.3)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확산) 이후 예견됐던 '수요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자업계의 고민이 깊어짐.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생산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위축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위생가전 확산 등 시장 변화 추세에 맞춰 생존을 위한 본격적인 비상경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가전업계, '원격교육·건강관리' 등으로 시장 변화 대응=가전업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시장 변화에 주목하며 원격교육과 건강관리 가전 등을 앞세운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한다는 계획. 삼성전자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홈스쿨링, 홈오피스 등 스마트TV 특장점에 기반해 차별화한 시나리오를 소개하겠다고 밝힘. LG전자도 "건강관리 가전 테마를 강조하고 온라인 판매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소비시장 침체로 올해 수출·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질 것"이라며 "코로나 특수로 시장 다변화를 꾀하려면 원격진료 활성화 등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아마존, 1·4분기 매출 26% 올라...순이익은 감소 (서울경제 20.5.1)

아마존의 1·4분기 매출은 754억5,000만달러(91조9,7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97억달러보다 26% 증가. 하지만 순이익은 25억3,500만달러(3조901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28.8% 감소함. 아마존의 1·4분기 매출은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의 전망치(736억1,000만달러)를 뛰어넘었지만 주당순이익은 5.01 달러로 월가의 전망치(6.25달러)를 하회함. 이에 따라 실적 발표 이후 아마존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5% 하락함. 애플은 이날 실적 발표에서 올해 1~3월 매출이 583억1,000만달러(71조798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코로나19로 아이폰 생산공장과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아이폰 매출은 7% 줄었지만 애플TV 등 콘텐츠 서비스 부문의 매출은 늘어 시장 기대에 비해서는 선방.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는 매출이 545억4,000만달러였고 주당순이익은 2.26달러.

‘한 배를 탄 공동체?’...공항 vs 면세점 갈등 어떻게? (KBS뉴스 20.4.27)

알려진 대로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3사의 임대료는 롯데 200억, 신라 240억, 신세계 360억 원. 이 금액은 매출과 관계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 '최소 보장금액'으로 이들 면세점은 지금 하루에 천만 원 팔기도 쉽지 않은 입장. 이런 상황이라면 월 임대료는 고스란히 이들 면세점에는 손실로, 하지만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 건 따로 있었다고 언급. 정부의 임대료 감면 발표 이후 있었던 후속 조치 때문. 올해 6개월간 20%를 감면받으면 내년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 올해 받은 6개월을 제외시켜줬다고 했기 때문. 인천공항의 연간 임대료는 한 해 전의 여객 수와 연동해 계산됨. 그러니까 올해 여객수가 적으면, 내년에 임대료를 할인받는 것. 제한된 임대료율은 9%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음. 공항공사는 여객수가 급감해 이미 지난달 말 1단계 비상운영에 돌입한 상태. 이달 말에는 여객수가 3천 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개항 이래 여객 수는 사상 최저치만 경신하고 있는 상태로 공항공사의 매출이 급감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당장의 임대료 감면은 쉽지 않다는 것. 더구나 임대료 감면은 100% 지분을 가진 대주주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인천공항 공사 측과 대기업 면세점 3사 측이 다시 한번 모여 임대료 감면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 50%를 절반을 깎아주고 있고, 특히 여객 수가 대폭 감소한 일부 터미널의 경우엔 이달 말까지 임대료를 100% 감면. 이외에도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공항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 일부 혹은 전체 감면이 이뤄지고 있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임대료 갈등 이번 주 인천공항 측과 대기업 면세점 측의 두 번째 회동 결과가 갈등을 풀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됨.

업종코멘트(5/4-5/8)

유통, 화점점: 2020년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0.8p로 전년동월대비 31.2p 하락했으며 3월대비 7.6p 하락하며 2013년 1월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로 확인됨. 소비자심리지수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 직전인 2020년 1월 104.2(+6.7p yoy), 2월 96.9(-2.6p), 3월 78.4(-21.4p) 보다 절대 수치와 하락폭도 최저 수준으로 추정됨. 5월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일부 경제활동 재개를 통해 점진적인 지수 회복이 전망됨. 금주 실적발표 예정 기업은 BGF리테일(7일), 애경산업(7일), 코웨이(8일), 현대홈쇼핑(8일)

국내외 업종 지수 및 Peer 종목군 주가 상승/하락률

지수	증가(pt)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KOSPI	1,947.56	3.10%	롯데쇼핑	17.83	16.18	38.23	현대홈쇼핑	8.27	17.65	24.78
KOSDAQ	645.18	1.93%	현대백화점	7.70	14.13	27.99	웅진코웨이	3.37	-0.97	6.04
유통업	336.21	7.93%	신세계	8.83	13.73	18.04	SK네트웍스	-2.53	9.87	16.00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10.60	5.73	15.38	아모레퍼시픽	3.51	2.91	2.91
KRW/USD	1,225.20	-0.50	롯데하이마트	23.85	23.57	75.32	LG생활건강	-3.35	15.50	24.98
KRW/JPY	1,147.14	0.37	호텔신라	10.79	15.92	20.17	코스맥스	4.58	8.54	25.71
KRW/CNY	172.83	-0.49	신세계인터내셔널	7.65	10.66	11.79	한국콜마	3.52	3.39	22.00
			GS리테일	21.25	21.44	29.30	애경산업	5.54	10.00	33.33
			BGF리테일	6.40	7.85	33.33	코스메카코리아	18.95	17.71	58.71
			GS홈쇼핑	8.22	11.82	18.02	클리오	3.01	9.88	27.14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시세이도	-1.6	-6.9	3.0	PROYA	-0.2	-0.2	8.8	까르푸	1.3	-3.6	-10.6
로레알	9.0	7.1	12.3	노드스트롬	-1.0	-6.1	35.3	텐센트	2.6	1.8	10.8
상해자화	3.6	29.5	31.7	막스&스펜서	2.4	-5.2	-1.1	알리바바	-4.8	-7.2	3.9
P&G	-1.7	-6.3	1.5	이온 몰	4.6	9.1	17.9	JD닷컴	-8.1	-10.3	3.7
고세	-9.5	-11.7	-0.6	세븐&홀딩스	-3.7	-7.4	-2.4	VIP샵	-5.5	-14.8	7.7
에스티로더	3.7	-1.0	12.0	아마존	-5.2	-3.7	19.9	코스트코	7.6	1.4	26.3
LVMH	3.4	-1.6	8.4	월마트	-5.0	-7.0	2.9	이베이	-0.3	4.8	33.5
ULTA	1.8	-0.6	36.7	테스코	0.1	-0.8	5.5	중국국여	4.1	12.3	25.7
MARUBI	2.3	4.7	8.3	타겟	0.4	-4.6	16.9	라쿠텐	0.4	-2.1	20.6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화장품 글로벌 피어	시세이도	로레알	상해자화	P&G	고세	에스티로더	LVMH	ULTA	MARUBI	PROYA
현재가(현지통화)	6,390.00	265.30	32.43	116.82	12,630.00	172.54	352.45	214.28	72.70	128.56
시가총액(백만USD)	23,937	163,036	3,082	289,200	7,167	62,114	195,583	12,066	4,127	3,663
매출액 (백만USD)	2018 9,918 2019 10,381 2020 9,944 2021 11,199	31,816 33,443 31,419 34,175	1,080 1,107 1,073 1,202	66,832 67,424 70,093 71,164	2,738 2,969 3,092 2,995	13,683 14,801 14,149 15,428	55,307 60,083 52,752 61,717	5,885 6,700 7,386 6,866	238 261 283 338	357 441 555 703
영업이익 (백만USD)	2018 982 2019 1,044 2020 767 2021 1,140	5,689 5,935 5,902 6,620	87 109 84 99	13,363 14,273 15,570 16,315	437 510 408 328	2,055 2,564 2,276 2,696	11,639 12,589 10,131 13,314	785 853 895 641	68 88 97 117	57 69 85 110
순이익 (백만USD)	2018 556 2019 675 2020 497 2021 766	4,601 4,198 4,468 5,067	82 81 69 83	9,750 11,767 12,964 13,431	276 342 273 221	1,108 1,935 1,723 1,980	7,505 8,028 6,083 8,243	555 656 696 470	63 74 82 99	43 55 69 90
PER (배)	2018 44.8 2019 42.3 2020 46.4 2021 31.3	28.9 39.6 36.1 31.5	33.7 37.3 43.9 36.9	18.7 26.1 23.6 22.5	41.5 18.8 24.6 29.2	31.6 32.9 37.7 32.0	20.4 29.1 31.9 23.5	26.1 19.7 17.9 24.5	N/A 55.3 49.8 41.4	30.6 67.1 52.7 40.7
ROE (%)	2018 14.1 2019 15.5 2020 11.1 2021 15.5	15.1 13.3 13.8 14.7	9.7 9.2 7.3 8.0	18.3 21.2 32.2 28.7	17.6 19.6 13.6 11.0	24.4 41.0 38.9 42.1	20.7 20.8 15.6 18.6	33.4 35.5 38.0 27.6	35.6 23.2 18.2 18.4	18.2 19.5 20.0 21.3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유통 글로벌 피어		노드 스트림	맥스&스펜서	다카시 마야	이온 몰	세븐&홀딩스	아마존	월마트	테스코	타겟
현재가(현지통화)		17.66	93.00	956.00	1,340.00	3,435.00	2,286.04	122.92	236.30	108.23
시가총액(백만USD)		2,761	2,269	1,591	2,855	28,516	1,140,222	348,319	28,958	54,096
매출액	2018	15,478	14,194	7,960	2,587	43,162	232,887	500,343	75,384	72,714
(백만USD)	2019	15,860	13,624	7,670	2,834	49,887	280,522	514,405	84,391	75,356
	2020	15,466	12,836	8,365	3,008	61,628	342,610	524,810	79,314	77,260
	2021	13,162	12,259	6,624	2,880	58,678	402,418	542,351	78,396	80,681
영업이익	2018	926	208	317	442	3,516	12,421	20,437	2,411	4,224
(백만USD)	2019	837	213	241	480	3,727	14,541	21,957	2,843	4,110
	2020	840	711	233	571	3,896	13,313	21,750	3,620	4,678
	2021	131	569	-19	411	3,749	25,193	21,960	3,647	4,087
순이익	2018	437	34	212	274	1,626	10,073	9,862	1,584	2,914
(백만USD)	2019	564	44	149	304	1,838	11,588	6,670	1,746	2,937
	2020	537	421	147	316	1,953	15,737	14,283	2,039	3,281
	2021	22	317	-44	212	1,817	25,473	14,346	1,890	2,813
PER	2018	16.9	168.9	16.1	16.7	21.8	74.5	24.1	16.9	15.6
(배)	2019	12.1	132.8	15.6	12.3	21.3	80.3	42.4	16.3	13.2
	2020	5.1	5.6	12.6	8.9	14.3	69.4	24.6	13.7	17.0
	2021	36.5	7.3	N/A	13.4	15.2	44.5	24.1	14.1	19.8
ROE	2018	47.3	0.8	5.6	8.4	7.6	28.3	12.7	14.3	25.8
(%)	2019	61.0	1.2	3.7	8.9	8.2	21.9	8.9	10.4	25.6
	2020	57.0	12.3	3.6	8.8	8.3	18.8	18.6	11.7	27.9
	2021	0.9	8.1	-1.1	4.7	7.2	24.1	18.4	10.5	22.8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유통 글로벌 피어		가르푸	텐센트	알리바바	JD닷컴	VIP샵	코스트코	이베이	중국국여	라쿠텐
현재가(현지통화)		13.50	417.00	194.48	41.38	15.20	301.92	39.25	91.30	914.00
시가총액(백만USD)		11,970	513,863	521,736	60,772	10,221	133,322	27,508	25,238	12,279
매출액	2018	92,903	47,308	37,825	69,900	12,788	141,576	10,746	7,112	9,978
(백만USD)	2019	83,836	54,627	56,163	83,527	13,411	152,703	10,800	5,405	11,595
	2020	79,298	65,541	71,184	95,992	13,411	163,708	9,688	5,405	13,548
	2021	80,633	79,890	93,388	114,036	15,348	174,193	10,360	8,268	15,624
영업이익	2018	878	13,978	10,476	-396	366	4,480	2,222	812	1,587
(백만USD)	2019	1,184	16,125	8,508	1,302	959	4,737	2,321	561	734
	2020	2,421	19,016	13,783	1,112	959	5,208	2,876	561	-69
	2021	2,615	23,209	18,507	2,237	1,182	5,626	3,092	1,286	173
순이익	2018	-663	11,910	9,687	-377	322	3,134	2,530	468	1,289
(백만USD)	2019	1,264	13,510	13,081	1,764	821	3,569	1,786	420	-293
	2020	1,082	16,032	18,395	1,746	821	3,845	2,294	420	-71
	2021	1,202	19,925	22,093	2,764	1,008	4,135	2,518	824	102
PER	2018	N/A	33.1	45.1	N/A	13.0	33.3	15.7	38.0	7.0
(배)	2019	373.8	34.1	60.9	51.7	12.7	36.0	14.1	57.1	N/A
	2020	11.0	32.3	27.8	37.4	12.7	34.8	13.0	57.1	N/A
	2021	10.0	26.4	24.2	23.8	10.4	32.4	11.9	30.4	194.6
ROE	2018	N/A	27.2	19.9	-4.5	13.5	26.6	35.3	20.4	19.5
(%)	2019	11.8	24.7	N/A	17.2	22.6	26.1	39.0	13.8	-4.2
	2020	9.3	21.7	21.6	10.6	22.6	23.5	109.9	13.8	-0.5
	2021	9.8	21.9	16.8	15.0	21.4	21.8	-123.6	23.1	1.4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